

보도시점 2024. 9. 4.(수) 11:00 / 배포 2024. 9. 4.(수) 08:30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 한중일 3국 간 정책 협력 강화 필요성 되새겨 -
- 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소비시장 동향 등 논의 -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4. 9. 4.(수) 10:00, 롯데호텔월드(잠실) 에메랄드홀
- **주최/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한국 소비자연맹, (사)서울YWCA,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중국 소비자협회, 일본 소비자청, 일본 국민생활센터, 3국협력사무국 등 60여 명
- **의제** : ①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②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간 협력, ③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늘 10시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국장급 회의체)는 3국 간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통상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 순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10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차례로, 공정위는 2016년 제7차 협의회를 송도 웨라톤호텔에서 주최한 이래로 8년 만에 이번 행사를 다시 주최하였다.

* (제7회) '16.7월, 韓 인천, (제8회) '19.12월, 中 상하이, (제9회) '21.12월, 日 온라인

이번 협의회에는 3국 정부의 소비자 정책당국은 물론, 각국의 소비자 관련 주요 기관·단체도 함께 참석하여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의 경우 국민생활센터*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여 발표를 맡았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주요 소비자 기관·단체 소속 인사들이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축사를 전달하였다.

* 소비자권의 전담 日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 격에 해당하는 기관

** '11년 설치된 한중일 정부간 기구로, 사무총장은 각국 외교부에서 파견(3국이 번갈아 2년씩 수행)

이날 개회사에서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개최되는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①각국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②각국 소비시장 동향 및 국경간 협력, ③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의제인 각국의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국장급 인사가 직접 발표에 참여하였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그간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계속해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민생분야에서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3세션에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소비자단체소송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일본·중국 정부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주요 일정
2.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 | | | |
|-------|---------------------|-----|-----|--------------------|
| 담당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이승규 (044-200-4405)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민선 (044-200-4407) |



| 시간 | 내용 | |
|-------------------|---|---------------------------------|
| 10:00~10: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5분) ▪ 기념사(한국소비자원 원장, 5분) ▪ 찬조연설(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5분) ▪ 단체사진 촬영 <p>* 전체사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p> | |
| 10:20~10:30('10) | 무대 단상 정리 및 발표자 착석 | |
| 10:30~11:40('70) | 세션1 | 한중일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3인, 각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박세민 국장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법집행검열국 KUANG, Xu 국장 - (일본) 소비자청 증거기반정책결정국 FUJIMOTO, Takeshi 국장 ▪ 질의응답 (10분) | |
| 11:40~13:30('110) | 휴식 및 오찬 | |
| 13:30~15:05('95) | 세션2 | 한중일 소비시장 트렌드 및 국경 간 협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4인, 각 20분) *좌장: 한국소비자원 김경의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이진숙 국장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소비자보호과 Ni, Yuan 과장 - (일본) 국민생활센터 YAMADA, Akinori 이사장 - (한국) 서울YWCA 생명운동팀 박진선 부장 ▪ 질의응답 (15분) | |
| 15:05~15:20('15) | 휴식 및 무대 단상 정리 | |
| 15:20~16:55('95) | 세션3 | 집단적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4인, 각 20분) *좌장: 한국소비자원 변웅재 분쟁조정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이상훈 국장 - (중국) 소비자협회 데이터정보과 CHEN, Yongmei 과장 - (일본) 소비자청 법률시스템기획과 FURUKAWA, Tsuyoshi 과장 - (한국)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질의응답 (15분) | |
| 16:55~17:00('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 |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10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와주신
중국의 일본의 소비자당국 대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국협력사무국, 국내외 소비자단체 등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지난 제9차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 3국이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중일 3국에 참으로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 5월에는 3국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다시 개최되었고,
3국의 소비자정책협의회도
올해로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3국의 소비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은
3국 소비자당국에
특히나 전례가 없는 도전과제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과 같은
신유형의 기술이 우리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켰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다크패턴, SNS 뒷광고 등
나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등장하고,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위해제품 유통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현재의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책 여건 속에서
오늘 제10차 협의회에서는
각국의 소비자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각국의 소비시장 동향,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현재 3국은 유사한 소비자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국이
각국의 소비자정책과 소비시장 동향을 공유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긴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국 소비자당국이 이러한 의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중일 3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내외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